

프리몬트 / 오�클랜드
김석원 종합보험
 Fremont Oakland
 510.421.9999 510.272.0500



한국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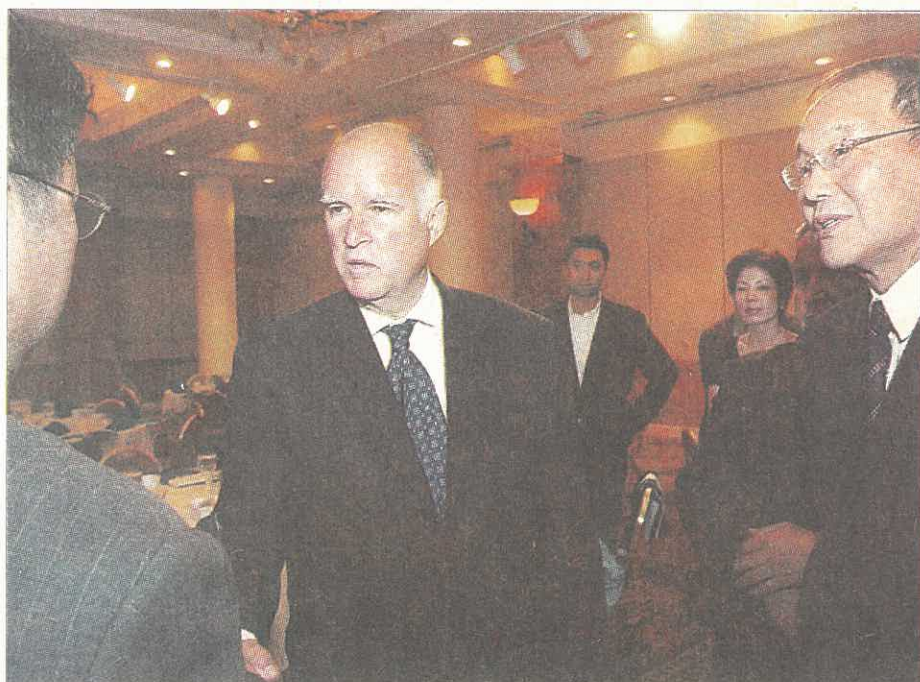
http://sf.koreatimes.com 510-444-0220

미주판 San Francisco

<제6878호>

THE KOREA TIMES

‘오�클랜드 한인타운 개발합시다’



‘오�클랜드에 투자하세요’ 제리 브라운 오�클랜드 시장(가운데)이 20일 오후 래디슨 윌셔 호텔에서 열린 ‘오�클랜드 개발 투자 설명회’에 참석한 한인 투자자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. 오른쪽은 알렉스 한 오�클랜드 한인타운 개발센터 회장. <이승관 기자>

친기업적 항구도시 남가주 한인들에 손짓

제리 브라운 시장 투자 설명회

“오�클랜드에 들어설 한인타운에 LA를 비롯한 남가주 한인들이 많이 투자해주십시오.”

제리 브라운 오�클랜드 시장은 20일 오후 래디슨 윌셔 호텔에서 열린 ‘오�클랜드 개발 투자 설명회’에서 “북가주에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오�클랜드는 투자에 가장 적합한 곳”이라며 “여러 면에서 남가주와 많이 다른 북가주에 투자할 경우 남가주

한인들은 지역적인 측면에서 투자 다각화에 성공할 수 있을 것”이라고 말했다.

1970년대말 캘리포니아 주 지사를 연임했던 브라운 시장은 “오�클랜드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며 각종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 승인을 거의 실시간으로 끝내고 있다”며 “친기업

적이고 기업가에게 우호적인 오�클랜드는 부동산과 비즈니스 투자를 적극 돕고 있다”고 강조했다.

브라운 시장은 오�클랜드에 투자해야 할 이유로 ▲오�클랜드 다운타운에서 북가주 중심지인 샌프란시스코까지 지하철로 12분밖에 걸리지 않고 ▲미국에서 네 번째로 큰 항구도시로 무역이 번성하고 있고 ▲UC버클리, 스탠포드 대학, 실리콘밸리가 가까워 산학 협동이 좋은 점을 꼽았다.

자리를 함께 한 데 라 푸엔테 오�클랜드 부시장은 “오�클랜드에 건설될 한인타운은 한 인간의 고립된 지역이 아니라 다민족이 함께 모여 융합을 이뤄내는 오�클랜드의 명소가 될 것”이라며 “남가주 한인들도 여러 면에서 빠르게 부상하고 있는 오�클랜드에 눈을 돌려달라”고 말했다.

한편 이날 설명회를 주선한 알렉스 한 오�클랜드 한인타운 개발 센터 회장은 “오�클랜드 한인타운은 이제 막 걸음마를 댄 단계이지만 시에서 활성화에 관심이 많다”며 “시에서도 타운 개발에 원조를 아끼지 않고 있는 만큼 남가주 한인들이 주택과 콘도 등을 개발하면 좋을 것”이라고 말했다.

한 회장은 “한인타운이 비즈니스 개선 지역(BID)으로 선정돼 시에서 펀드를 조성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세제 혜택도 베풀고 있다”며 “타인종과 공존하면서 함께 성장하는 모델로 한인타운이 꼽힐 수 있을 것”이라고 밝혔다.

한 회장은 오�클랜드 한인타운 형성의 모델로 삼기 위해 투자 설명회에 앞서 이날 오후 브라운 시장 일행과 함께 LA 한인타운을 돌아보았다.

<김호성 기자>

올림픽 한국축구 4강 좌절, 탁구 유승민 은메달 확보 <관계기사 2면, 스포츠면>